

# 냉전 시기 ‘아시아로부터의’ 위협으로서 공산주의

악셀 실트 함부르크 대학

독일연방공화국에서 1950년대 초 자행된 반공주의는 공산 독재체제와 민주주의의 대립을 강조하지 않았다. 당시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방어보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의 위협에 대해 서구 기독교 전통의 수호를 주창하였다. 아시아의 초원지대(steppe)에서 발원되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반공정신의 틀로 삼은 이상 인종차별주의적 요소가 배제될 수는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매우 특수한 반공주의의 성격을 열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조망한다.

주제어 반공주의, 공산 독재체제, 민주주의, 동방의 위협, 기독교 전통의 수호, 인종차별주의적 요소

## I. 서론: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나타난 반공주의적 ‘적 이미지’

최근의 새로운 연구들은 냉전을 단지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투쟁의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추세다. 오히려 냉전시대를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시대로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Stöve, 2007; Leffler und Westad, 2010; Kaelble, 2011; Eugster, 2012; Greiner et al., 2011; Fink, 2014 참조). 서독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반공주의라는 미명하에 통합되었다. 게다가 여기에 동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상상이 인종차별주의의 색채를 띤 채 연계되었다. 본 글에서는 서독의 정치문화에서 헤게모니로 작용했던 1950년대 초 반공산주의를 열두 개의 테제로 요약한다.

## II. 냉전문화의 열두 가지 테제

### 1. 첫 번째 테제

냉전은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시대(epoch)로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한 매체들이 냉전의 무기로 작용했다. 이 매체들은 한편으로는 억압되었다고 간주되었던 적대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을 통합시켜 전투에 이용하였다. 독일은 소비에트 블록에 소속되었던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고 1945년까지는 단일국가였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냉전 기간 서독과 동독의 관계에 관한 역사는 이미 심층적으로 연구되어 이에 대한 자료는 많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 서방에서 받은 영향이 어떤 국제적인 층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미 철저하게 설명되었다(Stöver, 2002; Lindenberger, 2006 등 참조).

이에 비해 냉전이데올로기의 내적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냉전이데올로기는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야만 했던 정치·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특히 엘리트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구 이데올로기 편을, 즉 미국 편을 들어야 했다(Doering-Manteuffel, 1999 참조). 양 진영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적의 편에 서 있다는 의심을 받아야만 했다(Gallus, 2001; Forner, 2014).

### 2. 두 번째 테제

서구권에서 냉전시대의 중심적인 통합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다(Creuzberger und Hoffmann, 2014 참조). 독일연방공화국 역시 이에 해당했으며,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첨예한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서쪽에 있는 이웃 국가들에서는 공산당이 합법적이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당이 짧게나마 지성적인 논쟁을 지배한 적도 있다. 독일인은 유럽의 중앙에 있다는 지리

적 위치와 나라를 횡단하는 철의 장막 때문에 동구로부터 온 공산주의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비에트연방을 공격한 것이 독일이었음에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것은 공산주의라고 인식하였다. 1950년경의 설문문에 따르면 서독 인구의 다수는 자신들의 시대가 양차대전 사이에 잠시 숨 돌릴 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Greiner, 2009 참조). 핵전쟁이 될 제3차 세계대전은 5~10년 후에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기에는 그 전쟁이 독일 영토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에트 블록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당대 유럽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약 20년 후에야 밝혀졌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은 역사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강조되었다(Loth, 2007 참조). 당대 사람들에게는 전후 폴란드에 속한 '동쪽 지역(Ostgebieten)'에서 독일인을 추방한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공산주의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방공화국까지 지배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3. 세 번째 테제

서구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단지 동구권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스탈린주의 프로파간다는 냉전이 시작할 때부터 평화를 최상의 가치로 강조했다. 소비에트 블록은 스스로를 세계평화 진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적인 전쟁유발자로 일컬었다. 동독인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정부가 국가를 분단시킨다고 비난했다.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은 서구가 퇴폐적이고 코즈모폴리탄적인 데 비해 자신들은 국가의 전통을 수호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국가적 통합'이라는 중심 개념들에 반(反)하여 서독은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상정했다. 서독의 정부 수반이자 연방 수상이던 콘라트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는 "자유 상태의 평화"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동쪽의 '평화' 개념에는 자유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Schildt, 2009: 39-54). 독일민주공화국이 속했던 소비에트 블록은 노예제로, 즉 수용소로 이루어진 체계이자 히틀러 치하보다 심각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자유와 비자유, 정의와 불의의 의미론적 극단화가 눈에 띈다. 자유 개념은 사실 민주주의 개

념보다 훨씬 불분명하다. 1950년대 초 사료(史料)에서는 스탈린주의적 독재와 의회 민주주의의 대조가 거의 개념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반공주의는 단지 공산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각의 정치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1950년대 초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는 이미 의회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정치적 엘리트 역시 보통의 국민들처럼 권위주의적인 사고 패턴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다.

#### 4. 네 번째 테제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에는 공산주의적인 불의와 비자유를 일컫는 고유한 명칭이 있었다. ‘공산주의’보다는 ‘볼셰비즘’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볼셰비즘’은 러시아에서 온 개념으로 그 당시에도 이미 50년간의 역사와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어로 ‘볼셰비즘’은 본디 ‘다수파’를 의미했으며 러시아의 사회민주당에서 레닌을 둘러싼 급진주의 좌파를 통한 다수파 - 이 개념은 1903년 전당대회에서 일시적으로 달성/쟁취된 개념이다 - 를 일컫었다. ‘볼셰비키’는 레닌을 둘러싼 이러한 조류의 사람들을 의미했다. 1917~18년에서야 비로소 레닌은 공산주의당을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개혁적 다수파 사회민주주의를 유럽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했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 역시 처음부터 레닌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선동가라고 비판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k)가 말한 19세기 차르 왕국의 특징에 빗대어 10월혁명 이후 볼셰비즘 독재를 일상적으로 “아시아적 전제정치”라 불렀다(Lösche, 1967; Zarusky, 1992 등 참조). 반공주의라는 개념은 이미 이 당시부터 모호하게나마 아시아적인 현상과 관련되었다.

10월혁명 이후에는 반(공산주의)혁명에서 비롯되어 유달리 독일에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적 서사가 발생했다. 이제는 “유대인적 볼셰비즘(jüdisch-bolschewistisch)”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만들어냈다. 유대인은 성실한 노동자를 유혹하고 유대교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주의적인 미사여구로 위장하는 자들로 여겨졌다.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수당들이 현대 건축물이나 재즈음악, 또는 여성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언급할 때 “문화볼

세비즘적(kulturbolschewistisch)”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현대적인 표현방식들은 “퇴폐적인 것(entartet)”으로 간주되었다.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현대적인 것, 무신론(Gottlosigkeit)과 소외현상에 책임이 있다는 반유대주의적 분위기가 있었다. 문화불세비즘과 소위 ‘유대인적 불세비즘의 세계 지배 계획’에 저항하라는 프로파간다는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이데올로기와 융합하였다(Vetter, 1995 참조). 소비에트와의 전쟁(1941~1945)에서 적(敵)은 “유대인적 불세비즘의 하등인종(Untermensch)”으로 그려졌다.

## 5. 다섯 번째 테제

1945년 이후부터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공공영역에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더는 반공주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1945년 이후 반공주의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 나치들은 전쟁 후반부에 이미 프로파간다의 방향을 선회했다. 나치즘이 내세운 반공주의는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의 결정적 패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마지막 2년 동안 동유럽에서의 전쟁은, 독일이 주도한 서유럽 전체와 아시아적인 불세비즘 간의 투쟁이라는 프로파간다로서 묘사되었다. 1943년 1월 말 스탈린그라드 패배 이후 히틀러가 내린 지시(Tagesbefehl)는 다음과 같다. “군대는 최후의 군인과 최후의 총알이 남을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그렇게 영웅적으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어전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서방을 지킨다.”(Domarus, 1973: 1796) 이렇게 나치즘은 서유럽이 머나먼 아시아의 대초원에서 온 위협적인 무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미지를 키워나갔다.

보수적인 저항의 대변인들도 이러한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괴델러 서클(Goerdeler-Kreises)의 외교관이었던 울리히 폰 하셀(Ulrich von Hassell)은 불세비즘에 대항한 “기독교적 서구의 생존투쟁(Überlebenskampf des christlichen Abendlandes)”(Schöllgen, 1990: 140)을 언급했다. 서구와의 단독강화를 위한 노력은, 반(反)불세비즘-서구의 연대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시도였고, 이는 전쟁 말미에 정권의 대변인과 저항세력에서 나온 구상과 유사했다. 미군과 붉은

군대가 나중에 서독과 동독의 경계선이 된 엘베 강의 토르우(Torgau)에서 마주칠 때까지 나치들은 미국과 소비에트연방 사이에 당장 전쟁이 발발하여 자신들은 서방의 편에서 계속 싸울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교차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기독교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서구(서방)’와 ‘유럽’이라는 개념이 널리 유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했다(Schildt, 1999 참조).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역시 이러한 상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첫 정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의 태생과 감각에 따르면 우리가 서유럽 세계에 속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기독교적 서구문화의 정신에 기반할 것이다. …”(Behn, 1971: 331-333)

서방의 가치에 대한 소명의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통적인 반공주의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며, 반공전선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우파독재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서유럽에 대한 소명의식은 미국에서 나온 자유주의적 정신의 과잉에 대항하기 위해 나오기도 했던 것이다.<sup>1</sup>

## 6. 여섯 번째 테제

냉전에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알려진, 소위 ‘동방에 대한 방어(Verteidigung gegen den Osten)’라는 연대감이 다시 조성되었다. 이것은 단지 프로파간다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민중의 대다수가 동방에서 오는 공격적인 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다. 많은 군인은 독일이 전쟁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보복을 두려워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붉은 군대로부터 도피하면서 벌어지거나 소련점령지역(SBZ: Sowjetische Besatzungszone)/동독(DDR)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 – 성폭행, 자의적 체포, 전 재산 강탈 – 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퍼뜨리고 다녔다. ‘러시아인’ 혹은 ‘이반’에 대한 불안이 널리 퍼져 있었다(Morina, 2008: 252-291).

<sup>1</sup> 정신사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Schildt(2006: 225-239); Hochgeschwender(2004: 1-30) 참조.

## 7. 일곱 번째 테제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냉전의 반(反)불세비즘은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이제는 점령 연합국이 금지시킨 공공연한 반유대주의가 배제된 반불세비즘이었다. 그러나 이 반불세비즘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인종차별과 무관하지 않았다. 몇몇 프로파간다 포스터는 나치의 프로파간다 이미지와 적잖게 유사했다. 그 이유는 '제3제국'과 서독에서 임무를 부여받았던 프로파간다 전문가들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다.<sup>2</sup> '동양학(Ostforschung)' 역시 연방공화국의 창건기에 세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큰 호황을 누렸다. 이 분야에서는 나치시대에 획득한 전문지식이 매우 유용할 수 있었다(Unger, 2007 참조).

## 8. 여덟 번째 테제

반불세비즘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협적인 적의 모습은 반(反)슬라브주의와 반(反)아시아주의를 매우 흥미롭게 섞어놓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직접 발화되지 않지만 관념적으로 연결고리가 생성되어야 했다. 이때 잊으면 안 될 것은 독일에서 아시아를 직접 보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국가는 기껏해야 문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즉 아시아로부터의 위협은 아시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낸 이미지였다. 이는 역사상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안환상(Angstphantasien)은 문화적으로 낯설고 불가해한 적(敵)이 있을 때 가장 잘 발현된다. 러시아는 비록 우랄산맥까지 유럽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는 아시아국가로 상상되었다. 냉전 시대의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던 서구인들에게 유럽 문화의 경계선은 우랄산맥보다 한참 앞에 있었다. 이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억압받는 국가들로 묘사되었다.

<sup>2</sup> 현재까지는 '유대교-불세비즘'이 슬라브적인 것과 '아시아적인 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모호하게 공산주의적 위협과 연관지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 9. 아홉 번째 테제

서쪽의 새로운 국가인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신의 위치를 이제 중앙이 아닌 서방, 즉 서유럽의 경계로 설정했다. 그렇다고 명백하게 자유주의적 노선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는 반볼셰비즘에 방점을 찍은 반근대적·권위주의적·기독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이데올로기는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방어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공격적인 측면으로는 연방공화국은 포츠담회담에서 확정된 국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독 우파는 1937년,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자 오스트리아와 체코 합병 이전의 국경을 언급했다. 독일에는 브레슬라우(Breslau)와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항상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이제 폴란드와 소비에트연방의 영토에 속했다. 전통적으로 성령강림절에 열리는 신헌민단체의 회의에서는, 심지어 히틀러 독일이 1937년 이후에 점령했던, 체코에 속하는 주데텐 지방(Sudetenland)까지 요구했다(Salzborn, 2001). 이 때문에 서독 동쪽 이웃국가의 국민들은 공산주의적 프로파간다와는 무관하게 서독의 보복주의에 두려움을 느꼈다.

서구 이데올로기의 주요 논지가 원래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서독 이데올로기는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핵심은, 서방을 대변하는 유럽이 아시아의 대초원으로부터 오는 습격을 방어하는 전투라는 최소 1,000년간의 전통 속에 볼셰비즘의 위협을 위치시키는 데에 있었다. 1955년 7월 10일 가톨릭과 개신교도 6,000명이 바이에른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시의 로제나우 역(Rosenau-Station)에서 기원 후 955년에 있었던 레히펠트(Lechfeld) 전투의 1,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이때 서독 외무부장관이던 하인리히 폰 브렌타노(Heinrich von Brentano)가 연설을 했다. 그는 1,000년 전 헝가리와의 전쟁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독일적 평행선(deutsche Parallele)”을 보았다고 했다.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서방의 대문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의 성문 앞에 동방에서 온 이교도 유목민 무리가 있었습니다. 타락과 몰락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에서 머지않은 곳에 동방의 무리가 다시 와 있고 우리는 서방이 그들로 인해 유린당하고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년 전보다 오늘날이 더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은 이제 개별적인 유목민 무리가 아니라 잘 조직화되고 정렬된 대륙 크기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sup>3</sup>

## 10. 열 번째 테제

불세비즘의 위협을 동서의 오래된 싸움에 편입시키는 경향은 (기독교적, 특히 가톨릭의) 서양 기사도 정신의 특수성에서 뿐만 아니라 1950년대의 다양한 지성적 구성물에도 나타난다. 특히 에른스트 용거(Ernst Jünger, 1895~1998)의 에세이 『고르디우스의 매듭(Der gordische Knoten)』(1953)이 유명하다. 용거는 우파보수 성향으로, 1933년 이전에는 반(反)민주주의(Antidemokrat)를 맹신했으며, 연방수상 헬무트 콜 시대인 1980~90년대까지 서독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Kiesel, 2009 참조).

용거는 공산주의나 불세비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서양의 개인적 자유와 동양의 집단적 운명주의의 대비를 강하게 드러낸다. 그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용거가 정치적인 싸움을 초월하는 듯 보이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가 동양을 낙인 찍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아시아를 동일시하는 인종주의적 공식 역시 나치즘에서 전수한 것이다. 용거는 고대의 소재나 중세의 전설을 예로 많이 들었는데, 그중 로마의 크라수스(Crassus)에 대해 그가 말할 때면 동시대인들은 “바르바로사” 작전(Unternehmen “Barbarossa”)이 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전선을 떠올렸다.

서양 군대가 몰락하는 이미지에는 다시금 사막, 대초원, 평야가 포함되었다. 이 공간은 적대적으로 변모하고 무더위와 폭한은 동맹자로 등장한다. 질서는 해체될 것

<sup>3</sup> Abdruck der Rede im Bulletin des Bundespresseamtes vom 14.7.1955; zit. nach “Abendland. Die missionäre Monarchie”, in *Der Spiegel*, Nr. 33, 1955, S. 12-14, Zitat: S. 12.

이라 위협받고 공격받는다. 적은 황무지를 그물이나 미로로 이용하며 자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적은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기병대와 후위전투, 빨치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길 선호한다. 작열, 오한, 허기, 불확실성은 그 어떤 전략보다 더 괴롭다. 예기치 못한 길을 가는 것은 동양의 최고지휘관보다는 서양의 최고지휘관에게 더 큰 모험이다(Jünger, 1953: 8).

용거에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한칼로 베는 것은 동서 간의 세계시민전쟁(Weltbürgerkrieg)을 끝내는 것이었다. 또한 상반되는 입장은 협약을 통해 인류학적인 상수로 인정하여 평준화한 세계정부(Weltregierung)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제시된 해법이 실현 불가능하며 유토피아적이라는 특성과는 무관하게, 혹은 바로 그 때문에 용거의 에세이는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에세이는 2년 동안 4판을 찍었다. 이 글에서는 점잖고 절제된 어조로 서양의 프로파간다가 개인적인 엘리트주의적 자유의 화신으로서 동양의 집단적 강제에 대항하는 모습이 초역사적인 모범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다.

## 11. 열한 번째 테제

동양에서 온 불세비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서양의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유화정책이 시작된 이래 서서히 희미해졌다. ‘불세비즘’의 개념 역시 점차 사라졌다. 소비에트연방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학문적 경쟁상대로서만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지금은 원자핵과 관련된 위협 때문에 안보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이후로는 그 누구도 소비에트 블록이 체제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 믿지 않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은 소비에트 연방이 더는 악마로 보이지 않자 잠깐 동안은 “레드 차이나(Red China)”라고 불린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으로 이행되었다. 이는 1960년대에 서양의 많은 젊은이가 문화혁명을 반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동향으로 오해했던 시절에 벌어졌다. 연방수상 한스-게오르크 키징거(Hans-Georg Kiesinger)는 1969년에 “난 그저 이렇게 말한다. 중국, 중국, 중국 …”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다시 먼 곳에 있는 공산주의적 위협에 대한 불안이 환기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불세비

증이 가하는 위협이 구성되었던 시절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Gassert, 2006: 715ff. 참조). 서독정치는 매우 빨리 소비에트연방과 중국의 대립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냉전 역시 자체적인 역사가 있으며 1950년대에 비해 매우 많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 12. 열두 번째 테제

냉전이 종료된 지 25년 만에, 적어도 유럽과 대서양연안 국가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볼셰비즘 이데올로기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통합적인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1990년 이후 선불리 수용된 '역사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인 갈등에서 적 이미지의 작동 메커니즘이 매체 문화의 현대화와 병행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냉전시대의 긴 역사를 통해 현재의 특징을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sup>4</sup>

## III. 결론을 대신하여: 열두 가지 테제의 요약

냉전은 사회적 ·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인 시대(epoch)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냉전 기간 동안 서독과 동독의 관계에 대한 역사, 서방으로부터 받은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해 냉전이데올로기의 내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냉전이데올로기는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야만 했던 정치 ·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특히 지식적 엘리트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구 이데올로기 편을, 즉 미국 편을 들어야 했다. 양 진영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입장에 서면 언제나 적의 편에 서 있다는 의심을 받아야만 했다. 서구권에서 냉전시대의 중심적인 통합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비에트연방을 공격한 것이

<sup>4</sup> Greiner et al.(2013)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것은 공산주의라고 인식되었다.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에는 공산주의적인 불의와 비자유를 일컫는 고유한 명칭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산주의’보다는 ‘볼셰비즘’이라는 용어가 더 이용되었다. 볼셰비즘은 러시아의 사회민주당에서 레닌을 둘러싼 급진주의 좌파를 통한 다수파를 일컫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10월혁명 이후 볼셰비즘 독재를 일상적으로 “아시아적 전제정치”라 불렀다. 반공주의라는 개념은 이미 이 당시부터 모호하게나마 아시아적인 현상과 관련되었다. 냉전에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알려진, 소위 ‘동방에 대한 방어(Verteidigung gegen den Osten)’라는 연대감이 다시 계속하여 조성되었다. 이것은 단지 프로파간다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민중의 대다수가 동방에서 오는 공격적인 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다.

동양에서 온 볼셰비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서양의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유화정책이 시작된 이래 서서히 희미해졌다. ‘볼셰비즘’ 개념 역시 점차 사라졌다. 1970년대 이후로는 그 누구도 소비에트 블록이 체제경쟁에서 이길 것이라 믿지 않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은 소비에트 연방이 더 이상 악마로 보이지 않자 잠시 동안은 “레드 차이나(Red China)”라고 불린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으로 이행되었다. 이로써 다시 먼 곳에 있는 공산주의적 위협에 대한 불안이 환기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볼셰비즘이 가하는 위협이 구성되었던 시절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냉전이 종료된 지 25년 만에, 적어도 유럽과 대서양연안 국가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볼셰비즘 이데올로기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통합적인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냉전 시대의 긴 역사를 통해 현재의 특징을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5년 5월 19일 | 심사일: 2015년 7월 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22일

## 참고문헌

- Behn, Hans-Ulrich. 1971. *Die Regierungserklä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Günter Olzog.
- Bulletin des Bundespresseamtes* vom 14.7.1955, zit. nach "Abendland. Die missionäre Monarchie." In *Der Spiegel*, Nr. 33, 1955, S. 12-14, Zitat: S. 12.
- Creuzberger, Stefan und Dierk Hoffmann. 2014. „*Geistige Gefahr*“ und „*Immunisierung der Gesellschaft*“ *Antikommunismus und politische Kultur in der frühen Bundesrepublik*. München: Oldenbourg.
- Doering-Manteuffel, Anselm. 1999. *Wie westlich sind die Deutschen? Amerikanisierung und Westernisierung im 20. Jahrhunde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Domarus, Max (Hg.). 1973. *Hitler: Reden und Proklamationen. Kommentiert von einem deutschen Zeitgenossen*, Bd. II/2. Halbband, Wiesbaden: R. Löwit.
- Eugster, David. 2012. *Das Imaginäre des Kalten Krieges. Beiträge zu einer Wissens- und Kulturgeschichte des Ost-West-Konfliktes in Europa*. Essen: Klartext.
- Fink, Carole. 2014. *Cold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 Forner, Sean A. 2014. *German Intellectuals and the Challenge of Democratic Renewal. Culture and Politics after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us, Alexander. 2001.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s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Droste.
- Gassert, Philipp. 2006. *Kurt Georg Kiesinger, 1904~1988. Kanzler zwischen den Zeiten*.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 Greiner, Bernd (Hg.). 2009. *Angst im Kalten Krieg. Studien zum Kalten Krieg*, Bd. 3. Hamburg: Hamburger Edition.
- Greiner, Bernd, Tim B. Müller und Claudia Weber (Hg.). 2011. *Macht und Geist im Kalten Krieg. Studien zum Kalten Krieg*, Bd. 5. Hamburg: Hamburger Edition.
- Greiner, Bernd, Tim B. Müller und Klaas Voß, (Hg.). 2013. *Erbe des Kalten Krieges*.

- Studien zum Kalten Krieg*, Bd. 6. Hamburg: Hamburger Edition.
- Hochgeschwender, Michael. 2004. "Was ist der Westen? Zur Ideengeschichte eines politischen Konstrukts." In *Historisch-politische Mitteilungen. 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 (HPM), S. 1-30. Jg. 11.
- Jünger, Ernst. 1953. *Der gordische Knoten*. Frankfurt/M: Vittorio Klostermann.
- Kaelble, Hartmut. 2011. *Kalter Krieg und Wohlfahrtsstaat. Europa 1945-1989*. München: C.H. Beck.
- Kiesel, Helmuth. 2009. *Ernst Jünger. Die Biographie*. Berlin: Pantheon.
- Leffler, Melvyn P. und Odd Arne Westad (Hg.). 201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Bd.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enberger, Thomas (Hg.). 2006. *Massenmedien im Kalten Krieg. Akteure, Bilder, Resonanzen*. Köln: Böhlau.
- Lösche, Peter. 1967. *Der Bolschewismus im Urteil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1903-1920*. Berlin: Colloquium.
- Loth, Wilfried. 2007. *Die Sowjetunion und die deutsche Frage. Studien zur sowjetischen Deutschlandpolitik von Stalin bis Chruschtschow*.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Morina, Christina. 2008. "Vernichtungskrieg, Kalter Krieg und politisches Gedächtnis. Zum Umgang mit dem Krieg gegen die Sowjetunion im geteilten Deutschland."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S. 252-291. Bd. 3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alzborn, Samuel. 2001. *Heimatrecht und Volkstumskampf. Außenpolitische Konzepte der Vertriebenenverbände und ihre praktische Umsetzung*. Hannover: Offizin.
- Schildt, Axel. 1999. *Zwischen Abendland und Amerika. Studien zur westdeutschen Ideenlandschaft der 1950er Jahre*. München: Oldenbourg.
- \_\_\_\_\_. 2006. "Westlich, demokratisch. Deutschland und die westlichen Demokratien im 20. Jahrhundert." In Anselm Doering-Manteuffel (Hg.). *Strukturmerkmale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S. 225-239. München: Oldenbourg.
- Schildt, Axel. 2009. "Das "christliche Abendland" als Zentrum politischer Integration in der Frühzeit der Ära Adenauer." In Tilman Mayer (Hg.). *Medienmacht*

- und Öffentlichkeit in der Ära Adenauer*, S. 39-54. Bonn: Bouvier.
- Schöllgen, Gregor. 1990. *Ulrich von Hassell 1881~1944. Ein Konservativer in der Opposition*. München: C.H. Beck.
- Stöver, Bernd. 2002. *Die Befreiung vom Kommunismus. Amerikanische Liberation Policy im Kalten Krieg 1947~1991*. Köln/Weimar: Böhlau.
- \_\_\_\_\_. 2007. *Der Kalte Krieg. Geschichte eines radikalen Zeitalters 1947~1991*. München: C.H. Beck.
- Unger, Corinna. 2007. *Ostforschung in Westdeutschland. Die Erforschung des europäischen Ostens und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1945~1975*. Stuttgart: Franz Steiner.
- Vetter, Mathias. 1995. *Antisemiten und Bolschewiki. Zum Verhältnis von Sowjetsystem und Judenfeindschaft 1917~1939*. Berlin: Metropol.
- Zarusky, Jürgen. 1992. *Die deutschen Sozialdemokraten und das sowjetische Modell. Ideologische Auseinandersetzungen und außenpolitische Konzeptionen 1917~1933*. München: Oldenbourg.

---

**Abstract**

## Communism as an “Asian” Threat in the Cold War Anti Communism of the Earl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xel Schildt Hamburg University

---

Anticommunis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did not emphasize the antagonism of democracy and communist dictatorship. Instead,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publicists stressed the long tradition of Christian occidental (*abendländisch*) defense against an Asian threat from the Russian east. This imagination of a battle against a danger from the Asian steppe incorporated necessarily some racist elements.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sketch in 12 assumptions of the profile of this unique form of anticommunism.

**Keywords** | anticommunism, democracy, communist dictatorship, Asian threat, Christian occidental defense, racist elements